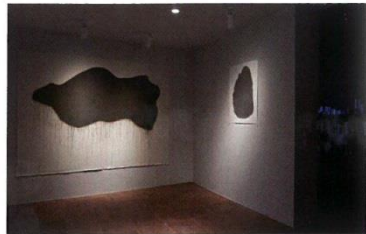


## 화가의 대화

April, 2020 | 전민경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표

page 1 of 2



## 화가의 대화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삶에 관하여 대중은 때때로 지나친 환상을 갖기도 하고, 그 이면에 어떤 무거움 이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화가는 비교적 사적인 계기와 직관에 의해서, 몸과 화면이 운용하며 이끄는 여정을 통해 일련의 '그리기'를 지속한다.

김홍주와 문성식은 서로 다른 세대를 산 작가이지만 작업의 태도와 성격이 닮아있다. 배경을 삭제하고 대상을 추구한 작품들, 원근을 무시하고 회화의 표면이 부각되는 평평한 구도와 묘사, 나아가 회화의 논리를 다루는 섬세한 비평의 눈을 지녔지만 여전히 직관적 그리기를 향하는 두 작가의 작업방식은 묘하게 중첩된다. 이번 대담은 동시대의 회화가 다루는 다양한 확장적 역할들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여전히 '그리기'에 천착하는 두 작가를 통해 '그리기'라는 가장 순진(mere)하고도 근본적인 지점에서 기인한 작품의 태도와 그 이면의 현실적인 작업 과정의 경험들을 듣고자 했다.

### 그리기에 대하여

김홍주(이하 김) 나는 예술가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개념을 오히려 나중에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당시 제대 후 ST그룹에서 고민하고 겪은 시행착오들이 결과적으로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포스트모던 작업으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다. 나를 대중에게 알려진 세밀작업들 이전 프레임을 동반한 오브제 위에 채색을 하고, 형상을 투영하던 작업에서 '그림을 대상화'하는 작업 방식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지점은 사물과 이미지가 회화적 개입을 통해 결합하며, 공간(프레임)과 시간성(형상이 비치고 반사되는)에 대한 회화의 역할을 모색하게 했다.

나아가 세밀로 이어진 회화의 표면이 유화에서 아크릴로 전환되며 물감에 대한 반응, 직관적으로 운용한 붓질을 통해 내가 경험한 감각적인 지점을 상대공유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자면 더더욱 철저히 직관에 의해, 감각에 의지하는 그리기가 지속되는 것 같다. 결국에는 '원시적인 그리기'에 대한 이야기. 실로 거창한 과정을 지나기보다 내 개인의 상황과 의지에 따라 그림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나는 아마추어 작가 아닌가? (웃음) 프로 작가라면 요구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터. 여전히 내게는 억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기본적으로 나의 화가로서의 그리기는 삶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것 같다. 그리고 종래에 삶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들이 작업적으로 형식에 기인하는 것 같다. 문성식(이하 문) 언급한 원시적인 그리기에 대해 공감한다. 나 또한 원초적인 회화의 접근 방법으로부터 감각적으로 세상을 느끼고 표현하게 된다. 감각은 총체성을 지니기에 특정 미술사조의 연대와는 다르게 구조화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김홍주 선생님 그림에서 현대성을 본다. 나에게 '그리기'라는 점은 언어화되지 않은 상태로, 의지적으로, 나아가 추상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고대 동굴벽화라든지 원시그림에 투영된 인간의 본성적인 면에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 혹은 의지, 어떤 욕망에 이르는 지점은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가? 내가 생각하는 동시대성, 현대성은 그런 성질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런 원초적인 욕망에 충실한 인간의 정성스러운 의지가 보이는 일련의 원시그림에서 욕망의 원형을 보고, 나의 그림에 새겨 넣고 싶어지는 것 같다.

왼쪽 문성식(사진 왼쪽)과 김홍주 작가  
오른쪽 더 그레이트 컬렉션 개관 기념전으로  
진행된 김홍주의 <형태가 될 수 없는  
형태>(2.22~3.14) 전시장경

### 추상에 대한 생각

김 구상적인 이미지를 다루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추상적인 형태의 그리기가 위주가 되었다. 이번에 출품한 더 그레이 컬렉션 개관 전시도 작년부터 작업한 세필묘사의 대형 작업들이다. 실제로 작업할 적에 계속 가느다란 세필로 묘사하기 때문에 내 사선이 전체의 균형이라던가, 조형성을 생각하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집중하면서 이미지들이 자라기 때문에 내 그림을 볼 때 관찰의 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까워지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의 정해진 시점으로 이미지를 보기는 어렵다. 결국 그림을 도상적으로 관찰하기보다 가까이 또 멀리 움직이며 일종의 체함을 해야 하는, 감각적인 면이 크다. 이는 내가 여전히 회화를 다루고 있지만 ST 그룹에서 모더니즘 이후의 여러 미술적인 개념과 서구모더니즘에 기반을 둔 이해, 그리고 당시 어쩔 수 없는 동양적 혹은 한국적이라는 프레임의 해석으로부터 고민했던 과정을 담고 있다. 의도적으로 고민을 기록했다기보다 작업의 과정이나 방식에 그런 것이 자연스레 드러나는 점이 있다. 당시의 동양적인 프레임이란 시대적인 입장과 비평을 지속해야 하는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했던 지점이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1970년대는 이미 서구화된 작업환경 속에 있었고 실사 당시 작업들이 지금 보기에 전통적인 인상을 동반할지 몰라도 동양의 정서라는 프레임이 동반하는 맥락이 과연 작가의 의도와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 선생님과 같은 시대에 대한 경험은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미술사에서 회화의 흐름을 지나오며 이러한 현상들은 일종의 유산으로 보게 되는 것 같다. 그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지금 현대회화의 자원이 되는 것 같다. 나 또한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추구하는 회화의 경향을 고민한다. 하지만 회화의 형식이론에 기반을 둔 진보 혹은 논리 등에 내 작업을 연관 짓기보다 그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선택적인 관심과 분야 혹은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경험적 그리기'에 대한 지점을 우선 고려하는 편이다. 전반적인 나의 작업은 구상적인 그림들이지만 앞으로 보다 추상성을 지니고자 하는 관심이 생긴다. 추상의 필요는 그림을 그릴 때 구상적인 묘사를 해놓으면 어떤 감정이 거세되기에 내 의지와 해석을 그림 안에 투영하려면 자연스레 표현적인 지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일련의 표현들에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기에 추상의 성격이 요구된다고 본다. 김 조각도 간혹 하긴 했지만 예로 조각이라 불리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이번 <형태가 될 수 없는 형태전>에서 목원대 재직 시절 교정에 남은 나무들을 쓰아가며 작업했던 것을 채색해서 내놓았다. 조각에는 볼륨이 있어야 하는데 회화와 같이 채색을 하고 나니 결국 조각의 본질과는 멀어진 셈이다. 입체를 다루면서도 나의 작업은 아무래도 이미지의 맥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문 김홍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림이 대상화' 된다는 점, 곧 선생님 표현대로 '조각 같은 그림'의 관점으로 추상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 나는 그 대상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본능적인 관점으로 추상성을 지니는 것 같다.

### 이미지의 동기화

김 내가 과거 학습해왔던 구상, 사실주의의 경향은 정밀묘사의 개념이 농후했다. 하지만 서구의 극사실주의 개념이란 사진, 곧 이미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나는 비교적 단순한 이유로 작업을 시작한다. 묘사를 할 때 색이 다양해지니 현선이 가중되기에 단색을 사용하고 그 형상이 드러날 수 있지만 형태라는 것이 명료치 않기에 감각화되는 표현을 고민한다. 내 작업이 일루전 자체를 위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종래에 드러나는 어떤 이미지의 상상성을 삭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는 개인의 사고가 개입되는 점에서 순수한 일루전을 논하기 어렵다고 본다. 원초적인 동공벽화가 동반하는 것이 스크린(프레임) 없이 그림이 실제 공간에 혼용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다.

문 작업 동기에서 시작되는 개인의 문제의식, 의문들, 나의 경우는 인간사에 대한 관심들이 관찰에서 발현된다고 본다. 더 섬세하게는 극지적인 고민들 따위에서 일련의 미스터리한 장면들이 포착되고, 그것들이 주제의식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다. 나에게는 어떤 현실에서 멈춤의 시간을 주고자 어떤 시점의 각도도 형성된다. 그리고 그런 찰나의 밀착거리에서 경험이 쌓였을 때 결국 작업이 더 나아진다고 본다. 결국 내게 '경험적 그리기'는 관념을 만들기 위함인 것 같다. 재현이 아니니까. 입장이 생겨나고 해석이 드러나며 간혹 자기복제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사고들이 작업에 자국으로 기록되는 것 같다. **진행, 정리 전민경** 더 그레이 커미션 대표